

하반기 기능 인력 임금 4~7%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건설업 취업자 비중 하락세 지속

20 14년 건설 투자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94.7조원이고, 하반기에는 1.0% 증가한 10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나 건설투자 증가폭에는 못 미친다. 2월에는 증가 폭이 가장 커 3.7% 증가했고,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

다 4월에는 0.2%의 감소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1/4분기의 건설업 취업자 구성비는 6.76%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처음으로 7% 아래로 하락한 작년 1/4분기의 6.8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취업자 수의 증가가 미미하고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은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 투자의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1	2	3	4	5
취 업 자	전(全) 산업	24,244	24,681	25,066	24,759	24,819	25,163	25,684	25,811
	건설업	1,751	1,773	1,754	1,688	1,663	1,699	1,775	1,821
	건설업 비중	7.2	7.2	7.0	6.8	6.7	6.8	6.9	7.1
	전년 동기비 증감률	-0.1	1.3	-1.1	1.0	3.7	0.4	-0.2	0.8
건설 투자(2010년 연쇄가격)		193.75	186.11	198.61	94.70(상반기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4	-3.9	6.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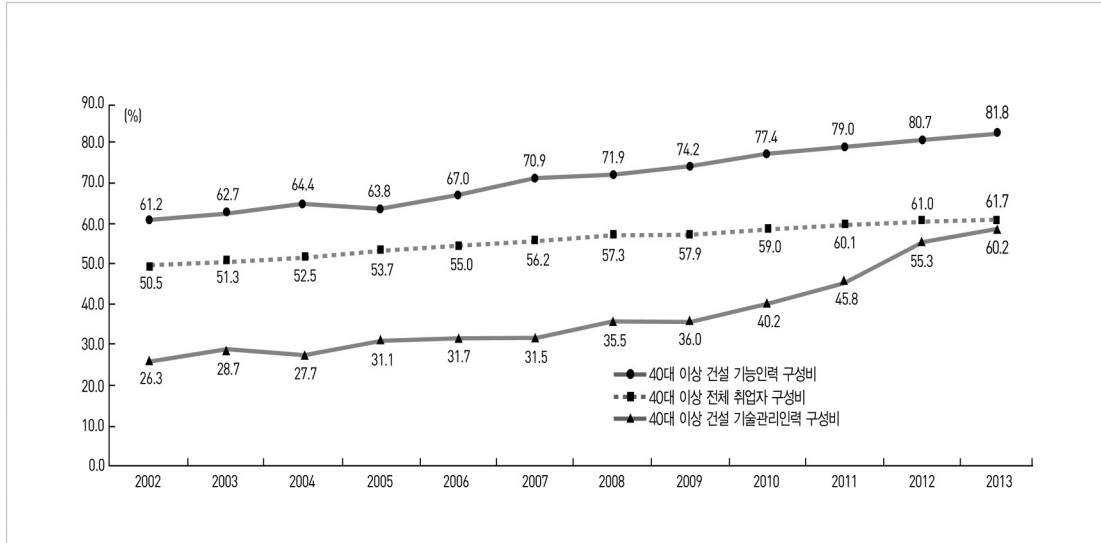
주 : 2014년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 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기술 관리 인력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이들의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저임금을 무기로 건설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숙련 인력 기반 붕괴

2013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1.7%인 것에 비해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2년 사이 11.2%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설 기능인력은 20.6%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기술 관리 인력 역시 2011년 이래 고령화 속

도가 갑자기 빨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근력과 현장 경험에 의존하는 숙련 인력의 경우 청년층의 진입은 중단되고 중년층이 줄며 노년층이 증가한다면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해 주요 직종 임금 모두 상승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

건설 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조사 시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0.5	2010.9	2011.5	2011.9	2012.5	2012.9	2013.5	2013.9	2013.5	2013.9
평균 ¹⁾	99,896	101,314	103,785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23,076	9.3	7.1
보통인부	70,497	72,415	74,008	75,608	80,732	81,443	83,975	84,166	4.0	3.3
형틀목공	101,932	104,308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32,235	132,373	23.0	15.0
건축목공	98,254	99,722	106,641	104,682	113,281	113,962	123,200	123,567	8.8	8.4
비계공	117,090	120,681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49,852	10.2	5.9
조적공	100,263	102,200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0,532	122,344	2.5	5.3
미장공	98,280	100,562	103,210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29,924	9.7	12.9
방수공	81,638	82,178	77,442	81,612	88,799	87,417	92,902	91,971	4.6	5.2
타일공	104,474	105,611	110,585	115,534	120,603	123,611	130,375	126,339	8.1	2.2
콘크리트공	100,947	103,765	102,951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5,217	10.8	6.1
배관공	91,564	92,988	94,293	95,187	103,242	104,844	112,679	108,729	9.1	3.7
도장공	95,987	93,119	100,929	105,730	106,840	109,720	114,929	115,265	7.6	5.1
철근공	108,427	109,325	111,058	114,884	118,389	118,264	127,758	128,252	7.9	8.4

주 : 1) 보통 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4,16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2만 3,076원으로 7.1%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 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4만 9,852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3만 2,373원), 미장공(12만 9,924원), 철근공(12만 8,252원), 타일공(12만 6,339원) 등이 잇고 있다. 1년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형틀목공의 경우 15.0%가 올라 1만 7,291원이 상승했고, 미장공의 경우 12.9%가 올라 1만 4,829원이 상승했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다.

내국인 기능인력 공급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 인력 수요는 전년 동기에 비해 0.1% 증가한 13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로 공급은 4.0% 줄어 108만 3,00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작년에 이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임금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2014년 하반기에 국내 기능 인력 수요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나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임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2014년 하반기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구 분		2011년	2013년			2014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투자		186.11	92.21	106.39	198.61	94.70	107.43	202.12
건설	수요(전체)	1,291	1,324	1,356	1,340	1,332	1,358	1,345
기능인력	공급(내국인)	1,177	1,121	1,129	1,125	1,080	1,083	1,081
일일 임금	숙련 인력	113,660	122,911	123,076	122,994	131,515	132,307	131,911
(8시간 기준)	비숙련 인력	81,088	83,975	84,166	84,071	86,914	87,701	87,308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3.9	6.4	7.0	6.7	2.7	1.0	1.8
건설	수요(전체)	4.6	3.1	4.5	3.8	0.6	0.1	0.4
기능인력	공급(내국인)	2.8	-4.8	-3.9	-4.4	-3.7	-4.1	-3.9
일일 임금	숙련 인력	7.6	9.3	7.1	8.2	7.0	7.5	7.3
(8시간 기준)	비숙련 인력	8.4	4.0	3.3	3.7	3.5	4.2	3.9

주 : 1) 건설 투자는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2) 건설 기능 인력 공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3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금 수준(하루 8시간 기준)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 취업자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들이 내국인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요인을 상쇄시켜 반대로 하락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2014년 하반기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임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해 13만 2,307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4.2% 증가해 8만 7,701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내국인 고령화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외국 인력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감소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취업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것은 방문취업 동포(H-2)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허용 인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건설업 취업 등록 및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2013년 말에 정부는 2014년도 건설업취업등록제 총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으로 동결하되, 고용허가제는 기존 연간 1,600명에서 2,350명으로 750명을 증원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2013년 기준 약 25만명)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ERIK